

연중 제 15 주일

기도서 390 면

제 1 독서 : 아 모 7, 12-15  
제 2 독서 : 에 케 1, 3-14(3-10)  
복 음 : 마 르 6, 7-13

# 숲 정 이

발 행 원주교전주교구  
편 집 사 목 국  
인 쇄 관 리 국

편집실 : 전주시서노송동560~6  
전주 교구청  
☎ ③ 5098 ③ 3201

□ 강 료



## 회개 하라

문 규 현 신부

오늘 복음에서 예수께서는 신자들을 들춰 짚어서 세상에 파견하신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은 그리스도의 메시지 전달에 있다. 메시지는 '회개하라'였다. 회개란 마음과 행위의 변화를 뜻한다. 그러나 파견된 자의 선행적(先行的) 삶이 요구된다. 신고 있는 신발과 한 벌의 옷이면 족할만큼 그리스도를 철저히 받아들이는 삶이다.

우리는 제자들과 같이 이미 믿음에 선택받았고 우리가 사는 곳에 파견받았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메시지 선포는 무엇보다도 시급한 사명이다. 우리의 목을 것 입을 것 걱정보다 앞선다.

그리스도인은 하느님이야말로 우리 희망의 전부임을 굳게 믿는 사람이다. 즉 하느님은 성실하셔서 약속을 어길 줄 모르는 분이시기에 그분께 거는 우리의 기대나 희망을 꼭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고 계심을 믿는 사람이다.

하느님의 한량없는 사랑의 발로 말씀이 인성을 취하여 사람이 되어 오셨고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는 사람이다. 그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 희망이요, 그분 안에 우리 모든 희망의 성취가 있음을 굳게 믿는 사람들이다.

군산시에 4개의 가톨릭교회를 포함해서 기독교라 이름하는 교회가 40여개나 된다고 한다. 교회가 늘어나면 신앙인이 늘어난다는 얘기도, 신앙인이 늘어난다면 사회도 무엇인가 변화되어야 될텐데 그렇다고 말할 수 없으니 무엇때문일까? 그리스도를 왜곡 선포하거나, 아니면 우리의 삶이 신자답지 못한데 있지않을까? 생각해 본다. 그렇다면 우리의 회개가 요구된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전부인 삶은 제일 강한 용병이 될 것이다.

때가 차면 하느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나가 될 것이다(에페 1, 10)이 말씀이 확실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주어진 '오늘' 뿐이다. 내일은 내일이 아니다. 오늘이 우리 희망의 성취를 위하여 주어진 회개의 때다.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싹트고 뿌리 내리도록 우리 마음의 밭을 곱게 고르다면 얼마나 좋을까.

<팔마 천주교회 주임신부>



## 이야기들

□ 조선시대에 삼정이 몹시 문란한 때가 있었다. 그 도가 얼마나 심했는지, 농촌에서 지방관과 향리의 부정부패를 목격한 정 약용은 "감사와 수령을 나라의 큰 도적으로, 향리를 굶주린 술개"에 비유하였다. 백성들은 항상 앉아서 당하지만은 않았다. 소청도 하고, 탐관오리들을 비방하는 벽서(壁書)운동도 했다. 흉년과 전염병마저 백성들을 궁지에 몰아넣으니, 드디어 흥경태란과 진주 민란같은 일이 터진다.

삼정(三政)이라 함은 토지에서 받아들이는 전정, 16세 이상 60세까지의 장정들이 군포를 내는 군정, 춘궁기에 가난한 농민들에게 미곡을 빌려 주었다가 추수기에 받아들이는 환곡을 말한다. 이 가운데에 군정이 어떻게 문란했었는지를 보자. -도망자나 사망자의 체납분을 친족이나 이웃 사람들에게 물리는 족정과 인정이 있다. 그런가 하면 60세가 된 번역자에게 고의로 나이를 줄여 징수하는 강령체도 있고, 젓먹이를 장정으로 나이를 올려서 징수하는 황구첨정도 있다. 또한 병역의무자에게 일시불로 받아들이는 마감체도 있다. 더 심하면 죽은 사람을 산사람으로 만들어 징수하는 백골징포(白骨徵布)도 있다. 이러니 백성들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 개명된 요새에도 도내의 J군에서는 군복무를 마치지 않은 사람이나 회비 면제자에게 재향군인회비를 징수해서 말쑥이다. 군단위로 회비수납 경쟁을 하다보니 과잉 무엇이 나온 것이다. 이장들은 자기 봉급에서 우선 할당된 회비를 공제하고, 부락에서 회비를 거두었다. 경쟁도 좋지만 이전 너무했다. 옛날의 망령이 되살아나는 느낌이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정의로운 사회, 복지 국가를 이룩할 수 있다는 말인가? 군정의 책임자는 마땅히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잘못은 누구나 할 수 있다. 문제는 빨리 책임을 느끼고 사과할 줄 아는 것이 중요하다.

## 숲 정 이 산책





# 현시국에 대한 우리의 견해

하느님께서서는 "법이 나의 척도요, 정의가 나의 저울이다" (이사 28, 17)라고 말씀하셨다. 법과 정의는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객관적 기준이 되어야 한다. 하느님의 진리에 따라 살고자 하는 우리 사제들은 최근 우리 사회가 대학생들에 의한 부산 미문화원 방화와 그에 따른 최기식 신부 등의 구속사건, 경찰관에 의한 의령 양민 학살사건, 장영자 여인의 거액 사기사건 등으로 이어지는 거센 소용돌이 속에서 법과 정의의 기둥이 흔들리고 국민사이에 불신과 위화감이 팽배하고 있는 현상을 우려하면서 하루속히 안정을 되찾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의 견해를 밝힌다.

1. 우리는 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이 일어난 원인을 주목한다. 이는 정치, 사회 현실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이 폭력적인 양상으로 표출된 사례였다고 본다. 이는 폭력만능의 사고방식이 다른 폭력을 불러 일으킨 정치풍토의 결과라 하겠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정부가 폭력수단을 포기하는 것만이 학생들의 폭력적 반응을 무마시키는 지름길이라고 본다.

2. 이 사건이 일어난 후 우리 교회는 원주교구의 최기식 신부, 문길환, 김현장 형제, 김영애 자매들이 범인은닉,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되고, 다른 교구의 신부 10여명이 조사받는 등 시련을 당했다. 우리는 이런 사건들이 광주사태에 그 근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아픔을 함께 하면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3. 우리는 최근 교외 사회선교 협의회의 성명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적자영농에 울고 있는 한국 농민의 희생 위에 미국산 쌀을 고가로 매입해야 하는 그런 한미관계가 시정되지 않는다면 양국간의 진정한 우호관계가 지속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이러한 견해를 '반미'라는 구호로 일괄 매도하는 태도는 부당하다고 본다.

4. 우리나라의 농민들은 생산비에도 못미치는 적자영농과 잇따른 흉년, 외미 과다매입 등으로 농촌해체의 위기 앞에 있으며, 도시 근로자들도 대기업의 자금압박, 도산, 실업 등으로 인해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이들에게 정신적 힘이 되고 있

는 가톨릭 농민회, 가톨릭 노동청년회, 도시 산업선교회 등의 단체들을 좌경내지 용공시하고 이들 단체에 속한 농민, 근로자들을 직접 간접으로 탄압하고 있다. 우리는 70년대의 산업역군들의 인권과 생존권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하고 또한 그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5. 언론은 사실을 공정하게 알려 국민들로 하여금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사명이 있다. 우리는 최근 일련의 사태를 통해 언론이 왜곡 보도만을 남발하여 여론을 오도할 뿐 아니라 여론제관의 형식을 통해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가치관만을 주입시키는 데 경주하고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이 나라의 언론은 (극소수를 제외하고) 권력과 복합체제를 이루어 폭압의 용기로 전락하고 말았다. 우리는 진정한 국민복을 위하여 언론이 자기 본연의 사명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6. 우범근 순경의 의령 양민 집단 학살 사건과 권력의 그늘 아래서 저질러진 장영자 여인의 거액 여음 사기사건은 하느님의 법과 정의의 양식을 밀바닥부터 흔들어 버렸으며 국민들은 이 나라의 운명을 걱정하며 허탈과 실의에 빠져있다. 우리는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이러한 진통과 파동을 연면한 역사를 이끌어 온 국민들의 지혜와 힘과 용기로 극복되기를 기도한다. 아울러 우리는 김일성 집단이 우리 사회실상을 과장되게 악선전하지 말것을 경고하며, 또한 이 나라의 정부 당국자도 건전한 비판적 민의를 이적행위로 규정 매도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7. 우리는 건국 이래 최대의 불행한 사태에 입하여 우리 사회가 도덕정치의 출현을 간절히 바라고 있으며, 현정권은 이제 통치능력의 한계가 왔다고 본다. 이에 우리는 현정권이 기회있을 때마다 강조해 온 책임정치의 구현을 위해 퇴진의 용단을 내림으로써 도덕성의 회복과 책임정치의 실상을 보여주기를 바라지 않는다.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 정의를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마태 12, 33)

1982. 6. 14

한국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 사제단

## \* 축! 제6대 교구장 박정일 주교님 선임 \*

—성심 여중·고, 해성 중·고교 직원·학생 일동—

조국의 아름다움을 가장 잘 아는

**전 일 관 광**

전 화 ⑥ 6 6 6 6

조 (안토니오)선  
박 (가브리엘)용

땀 제거(독일수입품)  
**하 이 도 난**

사마귀 제거  
**베 루 말**

**전주 시민약국**

전화 4-0009  
3-3338

중앙시장 입구  
약사 김병의(마벨로)

금·은·보석·시계

**일 성 당**

정읍 중앙동  
제일아케이트 내

전화 6429

송 베드로(관룡)  
남 베로니카

**원평천주교회**

성전 축성식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  
으로 감사드립니다.

—원평성당 신자일동—



## □ 원평 새 성당 건립 축성

지난 5일 금산사 입구 원평 본당에서는 아름답게 둘러쳐진 담장안에 새롭고 아담하게 단장된 새 성전 건립 축성식이 1천여 교우들과 성직, 수도자들의 축복 속에 성대하게 거행되었다.

넓은 트랙에 촌민의 꿈을 가득 심으며 집념 속에 출발한 원평 본당은 수류에서 분리 4년만에 이남 복자 안드레아를 후보로 작고 끝에 대망의 성당 축성의 기쁨을 안게 된 것이다. 주임 김 태운 신부님과 교형들의 피땀어린 보람으로 깡촌에 힘겨운 1억여 공사비를 마련, 구슬땀에 가물을 적시며 낙성을 본 본당은 성당이 총 122평, 사제관 38평의 새 명소로 자리잡게 되었다.

오후 2시, 불별 속에도 이 가목한 패거를 축하하고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주교님과 신부님들, 그리고 고마우신 교형들이 온 성전을 꽉 메운 채 새 성당을 봉헌하며 기원하는 열기 더욱 뜨거워 단비마져 물아울 듯한 순간이었다.



## □ 성서 40주간 지도자 연수회

이 연수회는 성서 40주간을 집필하신 영원한 도움의 성모회 수녀님들께서 직접 지도해 주실 예정입니다. 성서에 관심이 있으신 신부님, 수녀님, 평신도님들의 많은 참석을 기대합니다.

- 일 시 : 7월 13일(화)오전 10시-7월 15일(목) 오후 3시
- 장 소 : 전주 가톨릭 센터
- 참 가 비 : ㉠ 1만원, ㉡ 1만 5천원(숙박비)
- 참가대상 :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 참 고 : 이 연수회 기간중 수녀연합회 정기총회가 있겠습니다.

## □ 시청각 통신성서 구약 연수회

본 연수회는 구약성서 전반에 걸친 16시간의 집중적인 본 강의와 2시간의 특강으로 시청각 매체를 다양하게 겸용하여 열리게 된다. 통신성서 정규생을 우선으로 하며 이미 성서를 공부하고 있는 분들을 선착순 30명에 한하여 모집하고 있다.

- 일 시 : 8월 2일~8월 5일, 장 소 : 가톨릭 센터
- 회 비 : 1만 5천원(숙박도 가능)
- 대 상 : 정규생(우선권) 성서 공부하고 있는 분(선착순 30명)
- 접수처 : 성바오로 서원(3-3398) 7월 25일까지 접수하여 주십시오.
- 주 회 : 전주교구 사무국, 성바오로 여자 수도회(서울 가톨릭 교리신학원 병설 시청각 통신성서 교육부)

## 전주교구 제6대 교구장 박정일 주교님 약력

1927년 1월 21일생  
원적 : 평남 평원군 등송면 청룡리

학력 및 경력	1958.11.23	: 사제 서품
1944.12 : 평양 숭인 상업학교 졸업	1962.9-70.8	: 부산 및 마산교구 내에서 본당 사무(조량 문산 진주)
1945.4-47.7 : 국민학교 교사	1970.9-77.4	: 광주 대전 신학대학 교수
1948.9 : 덕원신학교 고등과 편입	1977.5.31	: 주교 서품
1950.12 : 피난 월남	1977.5-82.7	: 천주교 제주 교구장
1951.5 : 성신대학 철학과 편입	1982.6.24	: 천주교 전주교구장 피임
1952.8-62.6 : 로마 유학. 을바오 대학 철학, 신학 석사. 성토마 스 대학 사회학 석사.	1982.8.10	: 천주교 전주교구장 작파
		(예정)

## 요심이(466) 김병호



상당수준의 교칙본(체르니, 쏘나타) 소화자에게 악보없는 시도 반주해 낼 수 있는 세미 크라식 반주법의 회소식

째즈 · 크라식

## 피아노 반주법

각 본당 전자올케 구입시 상담 및 협조해 드립니다.

성악 : 음대 지망자나 가요계 지망자

전화 ④ 3770

이일규(알로이시오)

※ 구 역전과 전교중간 사거리 전북은행 노송동지점 앞

주단 · 포묵(훈수 · 희갑옷 감)도매상

각종 솜, 이불(밍크)카펫지 도매상

## 서울주단

전화 ③ 0453

전주 중앙성당 정문 옆 김 안토니오

제 4 지구 각 분당 소식



1. 교구 교리교사연수회: 각지구 회장 모임-11일<일> 오후 2시 교구청 회의실, 하계연수회-22~24일 센타
2. 성서 40주간 지도자연수회: 13~15일 센타, 대상-성직자·평신도·수도사, 참가비-1만원/숙박시 1만5천원
3. 신학생 공소 시도조사: 13일~15일, 선정된 공소
4. 전주지역 푸르실로 릴레이(울드레아): 14일<수> 전통성당 강당
5. 6지구 사도회 임원연수회: 16일 오후 5시~17일 정오, 장제 천주교회
6. 5지구 중·고등학생 체육대회: 17일<토> 오전 9시30분, 순창 중앙국교
7. 제5차 레이오 연수회: 일시-17일 10시~18일 오후 3시, 장소-가톨릭 센타, 등록금-6천원(3천원 지원) 대상-Cu, Pr 단장 전원, 1~4차 연수회 불참단원 ※레이오의 권위자 부산레이오 김해결단장의 전담강의
8. 공소지도자 연수회: 19일~22일, 가톨릭 센타
9. 축! 영명: 15일-(성보나벤투라) 이수현 신부, 17일-(성알렉시오) 서정수 신부

(중앙)

전화 ⑥1711~3  
수입 신부 문정현  
보좌 신부 박인호  
사도 회장

- ※ 성경읽기: 이사야 1~10장
1. 앵콜 씨일: 성전신축 바자회 앵콜연장 - 10~11일 유명메이커 숙녀복·아동복 전품목 30%~70% 할인
  2. 설당권릴 현금 수입 내역: 변원구·소용영·김후영 김영애·신태순(각 1백만원), 정일남·전정숙(각 50만원), 조상숙·임경택·정경순·김종섭·강정숙(각 30만원), 백정남·이춘수·양형태·김영애·박상기·엄석철·김귀순·한정순·김낙준·박노옥·김영재(각 20만원), 임경숙·박이지·박남래·고한순·김상규·윤영근·김옥순·한병자·이덕남·김호진·장금배·박일순·황영자·서준식·윤여직·박인호(각 10만원), 송정애·정효남·최정우·이현순·서창원(각 5만원), 박금주·권수남(각 3만원), 익명(1백만원), 익명 2명(10만원, 수입 총액: 51,818,000원)
- 지난주 봉헌금: 927,001원 교무금: 499,800원

(노송동)

신부 ②0969  
수·사 ②7032  
수입 신부 김성필  
보좌 신부 박성재  
사도 회장 이홍재

1. 본당 중년대회: 8월 15일,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내용-① 말씀의 체험, ②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참가범위-국민학교에서 대학생·일반까지 원고마감-다음주까지 보좌신부에게 제출하세요
  2. 감사합니다: 본당신부님의 영명축일에 협조해 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 꾸리아 회합: 오늘 오후 2시 각 팀의 간부님들 빠짐없는 참여를 바랍니다
  4. 금주의 성경읽기: 구약·열왕기 하편 전체
  5. 예비자 교리안내: 일반-매주<일> 공식미사 후, 남자반-매주<목> 저녁미사 후, 학생-매주<토> 오후4시
  6. 릴레이·자모회·성모회 릴레이: 오늘 공식미사 후
  7. 전례모임: 매주<토> 오후5시, 미사-매주<일> 오전9시
  8. 성경기도회: 매주<금> 오후 2시~4시까지
  9. 특별헌금: 중노 1가에 한 영순씨 10만원 감사합니다
- 지난주 봉헌금: 363,315원

(덕진)

전화 ③2182번  
주입 신부 서석기  
보좌 신부 안철문  
사도 회장 양상열

1. 축 영세: 126명,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 오늘은 애령주일: 선영들을 위하여 미사 봉헌합니다
  3. 예비자 교리: 8월부터 시작, 1세대 1인 인도서약서 봉헌합니다
  4. 젊은이들의 모임: 매주일 저녁미사 후 젊은이들이여 좀더 관심을 갖고 협력합니다
  5. 안 이나시오(월문) 신부님 영명축일: 7월 31일 기억하고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6. 영세사진 찾아가세요-덕진사진관에서
- 지난주 봉헌금: 547,650원

(복자)

전화 ②5238번  
주입 신부 김중택  
사도 회장 조성호

1. 성우회: 오늘 오전 10시, 성당으로 집합 장소-상관천 예정
2. 자모회: 12일<월> 어머니 미사 후
3. 상관성당 강당 및 교리실 헌금 (오늘로 마감합니다) 이경호·윤양순·이희희(각 5천원), 장동주(1만원) 임금배·이성진(각 3천원), 최재홍·이봉춘·안순동·이원순·김성순·이인원(각 2천원), 염규철(1천5백원), 김경순(1천원), 누계-214,500원
4. 경부재님, 방학동안 본당에서 일하시게 되었습니다

5. 성당에서 몸가짐을 정중히: 잡담을 하고, 다리를 꼬고 앉는 분이 있는데 바르게 합시다
  6. 차주 전례: 해설-유덕열, 독서-①정동연 ②고희구
- 지난주 봉헌금: 371,160

(서학동)

전화 ②2276번  
수입 신부 김병환  
사도 회장 활인규

1. 반장회: 오늘 공식미사 후, 반장님들 참석 바랍니다
  2. 성심회 모임: 13일<화> 오후 2시, 장소-성당
  3. 할머니 모임: 다음주일(18일) 공식미사 후
  4. 첫 영성체 교리: 국민학교 하기방학 후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관심가지시기 바랍니다
  5. 중·고생 하기수련회: 27~30일, 지참물-미사도구 세면도구, 참가비-1인당 2,000원
  6. 제대꽃대 할머니회에서 20,000원 봉헌해 주셨습니다
  7. 다음주 전례담당: 독서-①이정민 ②강기호
- 지난주 봉헌금: 229,480원 교무금: 132,500원

(숲정이)

전화 ③7366  
수·유 ②9567  
주입 신부 이대권  
사도 회장 김수걸

1. 꾸리아 릴레이: 11일 오후 2시
  2. 성모회 릴레이: 18일 공식미사 후
  3. 하기 특별교리 안내 일시: 19일~24일까지 1주간 오후 6시30분 대상: 대학생, 중·고등학생, 교리교사, 부모님들께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져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4. 상반기 중 밀린 봉헌금: 남부름 주시기를 바랍니다
  5. 전례담당: 해설-이기호, 독서-①선종현 ②이동선
  6. 미사참례자 안내: 권말파, 송결자, 최윤희, 김재마, 김수현, 임동래
- 지난주 봉헌금: 442,235원

(전동)

전화 신부 ⑥208  
수·사 ③222  
수·유 ②8347  
주입 신부 김병준  
보좌 신부 박병두  
사도 회장 이종두

1. 자모회·장우회: 공식미사 후
  2. 성화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3. 첫 영성체 교리: 금요일 오후 5시
  4. 젊은이 하기수련회: 24일~27일, 무주 앞섬
  5. 주일학교 하계 교리: 교리책 500원
  6. 주일학교 6학년 수련회: 19일~21일(2박 3일) 참가비-2천원(준비물-11일 결정)
  7. 신축기금: 강바오로(1백만원), 오남배·송재진·김남수·김계순(각 5만원), 유기동(3만원), 송진남·임용식·이병수·소준영·문혜준·장애자·채정례(각 2만원), 한태수(1만5천원), 유호순·강희선·박경근(각 1만원), 이금임·이성은(각 5천원), 김순귀(3천원)
  8. 다음주 전례담당 아침미사: 해설-박종구, 독서-①이런재 ②김동연 공식미사: 해설-서정옥, 독서-①신일균 ②안득수 저녁미사: 해설-김윤주, 독서-①이영철 ②이승호
- 지난주 봉헌금: 539,770원

(파티마)

신부 ②0915  
수·유 ②4840  
주입신부 김영일  
사도회장 활희상

1. 레이오 간부 연수회: 17~18일 많은 참석 바랍니다
  2. 교무금 미신립자: 7월말까지 반드시 신립 바랍니다
  3. 레이오에 가입합니다: 영세매 받은 예언적에 적극 참여합니다
  4. 어린이 신양교육: 어머니들의 관심과 협조 바랍니다
  5. 신 수녀님 피정: 5일~13일, 기도 부탁드립니다
  6. 재경분과 위원회: 오늘 저녁미사 후
- 지난주 봉헌금: 234,085원 교무금: 201,500원